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띠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 개최기간 | 개최장소 | 참가규모 | 경제적 파급 효과 | 일자리창출
개최기간
2030. 5월~10월 | 개최장소
부산복합일원 |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 일자리창출
50만명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04 Vol. 42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2
2022. 04**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42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04 Vol. 42

부산광역시체육회
2022. 04 Vol. 42

영광의 주역
레슬링
양정모 원로

구·군체육회를 가다
사상구체육회

이슈 & 포커스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총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DAN SPORTS COUNCIL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42
2022. 04

발행일 2022년 4월 22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4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흐민디앤피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

건강한 육체

- 04 영광의 주역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양정모 원로
- 08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조승민 회장
- 12 부산스포츠 히어로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 16 스포츠 in 과학
운동 시 올바른 자세와 동작의 중요성

04



강

강인한 정신

- 20 부산체육이야기
부산에서 레저 활동의 첫 '발'을 딤자!
-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사상구체육회
- 28 달려라 부산체육
반여축구회
- 32 내일은 체육왕
해운대구스포츠클럽

24



한

한마음 광장

- 36 이슈 & 포커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 38 부산스포츠 기자단 에세이
해양스포츠의 메카 부산에서
요트 국가대표 조원우 선수를 만나다
- 40 스포츠 PLUS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스포츠 양궁
- 44 오늘의 10분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 46 슬기로운 건강생활
코로나 시대 건강 지키기,
그 첫 번째는 '손 씻기'
- 48 이달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28



생

생생한 소식

- 50 BSC 뉴스
- 52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 소식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 54 구·군체육회 소식
-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 59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36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한국 레슬링의 자존심, 양정모 원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최근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금메달 등 소장품 13점을 부산광역시체육회로 기증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향 부산에 금메달을 남긴 이유,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자.



메달권 선수가 되는 요건은 바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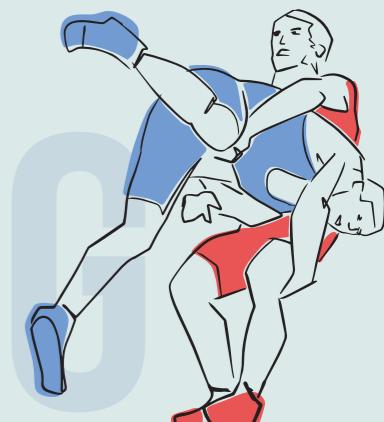
양정모 원로는 한국 레슬링에선 전설적인 인물이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서 해방 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7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와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두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메달을 땄다. 하지만 레슬링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까웠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용두산 공원을 놀러갔다가 공원 밑에 체육관이 있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프로레슬링이 인기였거든요. 체육관은 아마추어 레슬링 전문이었는데 우선 재미있어 보였고 저 같이 작은 아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친구와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때는 메달을 따고 하는 것보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훈련했어요.”

함께 체육관을 등록했던 친구는 운동이 힘들다면 6개월 만에 관뒀다. 하지만 양 원로는 달랐다. 레슬링을 무기로 건국상업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국가대표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세상에는 많은 운동선수가 있지만 올림픽대회 메달권에 들어가는 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차이가 이들을 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것일까. 체력과 실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겠다’, ‘메달을 따겠다’고 생각했고 매 경기 전마다 경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WRESTLING





오이도프와의 승부가 올림픽 금메달의 원동력

그는 수많은 국제대회를 나갔지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세계랭킹 1위는 몽골의 즈베이진 오이도프였는데 그는 양 원로와 같은 체급이었다. 그래서 감독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절대 62kg급에선 금메달을 못 땪다고 장담했다. 당시 양 원로는 세계랭킹 6위 안에도 못 들어갔던 때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예측불허. 양 원로는 일본선수와 이란선수를 이기고, 이어 오이도프에게서도 극적인 승리를 하여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직도 오이도프와의 3라운드 경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테헤란이 1,600m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마지막 3회전, 7 대 7동점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1분 10초. 오이도프 눈빛이 약간 흐려진 것을 확인하고 기술을 걸어 1점을 따게 됐습니다. 이후 남은 45초를 잘 버텨 7 대 8, 1점 차이로 멋진 승리를 했죠.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전 그때의 오이도프를 이긴 기억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비인기종목 레슬링에 많은 지원 필요해

양 원로는 1970~1979년 9년 동안 한국 레슬링 페더급 자유형의 최강자로 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은퇴를 하고 한국조폐공사의 레슬링팀 감독으로 후진 양성을 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희망나무 커뮤니티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끔은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내려온 국가대표 선수들과 레슬링 훈련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후배 선수들을 만나면 ‘레슬링에 대해 많이 생각하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하듯이 레슬러는 레슬링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야합니다.”

그는 한국 레슬링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아시아의 레슬링 강국으로 많은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어릴 때부터 레슬링을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점,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선수층을 보유



1976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2015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

하고 있는 점,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 메달 획득을 통해 다시금 선수층을 유입시키는 점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레슬링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 레슬링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레슬링은 축구나 야구처럼 인기종목도 아니고 운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선수들이) 레슬링을 택하지 않습니다. 레슬링 자원이 풍부해야 세계적인 선수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선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달리스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고향 부산 품에

양 원로는 지난 2월 소장품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금메달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청룡장 등 13점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기증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하길 권했으나 고향 부산에 두는 것을 택했다. 고향에 두는 것이 나는 물론이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볼 수 있으며 또한 부산을 찾는 외국선수들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소장품은 부산광역시체육회 1층에 자리한 부산국제기념전시관 내 ‘부산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존되어 부산을 빛낸 체육인 18인에 포함돼 전시되고 있다.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는 앞으로 어떤 선수로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길 바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년 간 레슬링을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 원로. 그가 있어 한국의 레슬링은 든든하다.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겠다는 그에게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앞으로 한국 레슬링계에 제2의 양정모, 제3의 양정모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PROFILE

주요 이력

- 해방이후 한국 최초의 올림픽금메달리스트
- 1974년 한국조폐공사 레슬링팀 선수
-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레슬링 국가대표
-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레슬링 국가대표
- 1978년 제8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레슬링 국가대표
- 1980년 한국조폐공사 레슬링팀 코치, 트레이너
- 1998년 한국조폐공사 레슬링팀 감독
- 2007년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초빙교수

수상내역

- 1971년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페더급 2위
- 1971년 세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그레코로만형 3위
- 1972년 제6회 아리아마컵 국제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페더급 2위
-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페더급 금메달
- 1974년 체육훈장 백마장 수상
- 1975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62kg 동메달
-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자유형 62kg 금메달
- 1976년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 1978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62kg 은메달
- 1978년 제8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페더급 금메달

*대한체육회 사진제공

부산 양궁의 방향을 말하다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조승민 회장

우리는 올림픽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대한민국 궁사들을 보며 그 단단한 실력에 감탄한다. 그런 양궁 선수들 뒤에는 공정한 평가와 완벽한 준비로 선수들을 지지하는 양궁협회가 있다. 조승민 회장이 이끄는 부산광역시양궁협회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만난 양궁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자.

회장으로서 바라보는 양궁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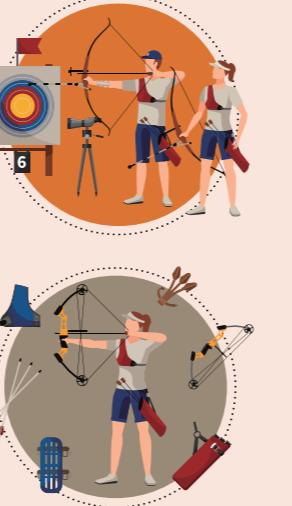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던가.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선친에 이어 (주)동진테크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승민 회장은 가업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물려받았다. 그러던 중 회사 경영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바빴던 언제쯤인가 문득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멀어진 운동을 당장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체육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동시에 종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주변 지인을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체육회의 여러 회원종목단체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양궁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조용하다보니 활동적인 운동보다는 양궁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연애상대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양궁에 대해 알수록 더 좋아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2019년부터 양궁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양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협회일도 처음이다 보니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 운영 방식을 존중해주면서 협회가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한국이 세계적인 양궁 대국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수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협회의 정책이나 목표가 양궁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메달리스트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동시에 국내 대회를 국제 대회 수준으로 진행함으로써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B U S A N A R C H E R Y A S S O C I A T I O N



66

한국이
세계적인 양궁 대국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수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협회의 정책이나 목표가
양궁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99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양궁이 나아갈 길

조승민 회장은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다고 한다. 좋아하는 운동을 묻는 질문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골프를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양궁과 골프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종목 모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스코어가 우선이죠. 결국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두 종목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인생도 양궁도 골프도 결국 방향이 중요하다 말하는 그는 그러면서 꼭 한번 양궁을 해보길 권유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나마 양궁은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국제 대회에서 조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양궁을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재미없을 것이라 선입견이 있는데 한번만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 양궁종목 경기방송을 볼 때 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궁의 저변 확대 기대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대회를 앞두

고 코로나로 인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못 치를 뻔도 했으나 조승민 회장의 배려로 강서체육공원 양궁장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시상대에서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를 만났으나 한마디 말도 못해봤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다른 협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비대면 회의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회 활동은 소화할 수 있지만, 동호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실제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설 실내 양궁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서체육공원 양궁장은 가능하죠. 비싼 장비도 대여해주고, 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는 만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승민 회장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중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이다. 전문체육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부산에서 양궁을 찾는 대중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양궁도 선수들이 하는 전문체육과 동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으로 나뉩니다. 양궁협회를 맡게 되면서 이 두 부분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확실히 협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잘 섞일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양궁협회 회장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2019)



부산광역시양궁협회장 배 양궁대회(2021)

조승민 회장은 특히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부산 내 여러 학교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양궁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했다.

“양궁 같은 경우 어릴 때 선수를 발굴해 육성시켜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양궁부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부산에서는 예산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다각도로 공들이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나 실업팀이 많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려 합니다.”

평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조승민 회장은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을 위해 세부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당초 양궁협회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운영하게 된 이상 차기 회장을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클럽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를 향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부산의 양궁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계획과 남다른 열정으로 부산 양궁에 기여해온 조승민 회장. 한국 양궁의 세계적인 입지가 큰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음 국제 대회에서도 강한 면모를 과시할 양궁의 미래를 그려본다.



조승민 회장과 강정식 전무이사

테니스 코트를 누비는 6인의 슈퍼 루키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3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인단식 은메달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공 속에서 코트를 가로지르는 선수들의 모습이 한눈으로 들어왔다.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학교 동문회와 테니스부 선수 동문회는 든든한 지원군

1898년 설립된 동래고등학교는 126년이나 되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 전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와 더불어 3대 명문 공립 남고로 꼽혔으며 지금 까지도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동래고등학교에는 2개의 스포츠부가 있다. 축구부와 테니스부. 그 중 테니스부는 정구부로 시작하여 오늘날 테니스부로 발전해 106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그래서일까. 동래고 테니스부는 동래고 동문회와 동래고 테니스부 선수 동문회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다.

“선배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테니스부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은 이 옷도 부산 향토기업 제품인데, 그 대표님께서 저희 학교 동문이시죠. 그리고 현재의 신창훈 교장선생님께서도 동문이시며, 그 밖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테니스부를 지원해주시고 계시기에 선수들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운동실력에 걸맞은 지성 갖추도록 학업에 매진

동래고 테니스부는 현재 1학년 4명, 2학년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감독은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강조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훈련을 마친 선수들에게 코트를 개방해 오후 10시까지 테니스 연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들은 저녁시간 동안 자유롭게 공부와 연습을 택해서 한다. 신 감독은 선수들이 출중한 운동실력에 걸맞은 지성을 갖출 수 있게 학교공부에 신경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선수들의 목표가 대학진학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신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훈련이 60%라고 하면 학교수업이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연습을 하면서 학원을 쟁여 다니는 선수들도 있고, 운동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학 진학률은 최고다. 선수들은 동래고 졸업 후 지난 3년간 한국체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으로 진학하여 학교에서는 선수들이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에는 최고 기록을 경신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테니스대회와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바볼랏 전국남녀 테니스대회 모두 단체전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3위를 기록했고, 김은재 선수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테니스 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

테니스부의 주축멤버 박강주·노현서 선수

동래고 2학년 박강주 선수는 테니스부 주장이다. 박 선수는 김해 장유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3~4학년 때 학교 내 테니스부가 창단해 테니스를 접하게 됐다. 처음에는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테니스였지만 어느새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테니스 경기는 보통 2시간 넘게 하는데, 오랫동안 집중하여 경기에서 이겼을 때 성취감이 아주 큩니다. 이것이 테니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박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바볼랏 전국남녀 테니스대회에서 당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선수 16명으로 뽑혀 시드를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건국대학교 대학생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가진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동안 좋은 기록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주 선수를 도와 테니스부를 이끌고 있는 부주장 노현서 선수는 7년째 테니스 삼매경 중이다. 육상부로 활동하던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테니스부 감독의 권유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부를 예측 할 수 없다는 점이 테니스의 매력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단체전에서 그 전년에 승부를 거둬 한 번 졌던 선수와 다시 맞붙어 이긴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가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될 때까지 테니스 연습을 하거나 며칠 푹 쉬다 다시 복귀하는 편이다. 또 선수들이 연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 환경과 항상 좋은 지도로 더 나은 선수를 만들어주시는 감독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2020년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



2020년 바볼랏 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

테니스부의 찬란한 미래

동래고 테니스부의 올해 계획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내는 것이다. 신 감독은 그 동안 많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앞으로 우승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달 15년 만에 데이비스컵 16강에 진출한 테니스 국가대표 남자성 선수가 바로 이곳 출신이다. 앞으로 남 선수와 같은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 동래고 테니스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동안은 팀을 짜서 교대로 연습경기를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해왔다.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훈련이 제자리를 잡은 만큼 동래고 테니스부의 미래는 밝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줄지 기대해본다.



주요 수상내역

- 1916년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창단
- 2006년 제86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동메달
-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19년 제74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개인단식 1위
- 2020년 제52회 문화체육부장관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
- 2020년 제46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
- 2020년 제56회 바볼랏 테니스대회 단체전 준우승
- 2020년 제56회 바볼랏 테니스대회 개인단식 2위
- 2021년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3위
-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인단식 은메달

Mini Interview

신창훈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래고등학교 교장 신창훈입니다.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는 106년의 역사를 가진 스포츠부로서 저희 학교의 자랑입니다. 테니스부는 그동안 대단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선수들과 감독의 열정,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테니스부는 테니스 구장이라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부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우리 선수들에게는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멋진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화이팅! 우리 선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운동 시 올바른 자세와 동작의 중요성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Professional Experience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2004-2013)
국군체육부대 체육과학연구실 전문체육연구관(2013-201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 선임연구위원(2014-2020)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기획지원실 연구혁신팀장(2020)
서울특별시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위원(2016-2020)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2017-2019)
현) 대한핸드볼협회 이사 &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현) 한국체육학회 편집위원
현) 체육과학연구 편집위원
현) 한국운동역학회 상임이사
현)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이사
현) 대한체력코치협회 교육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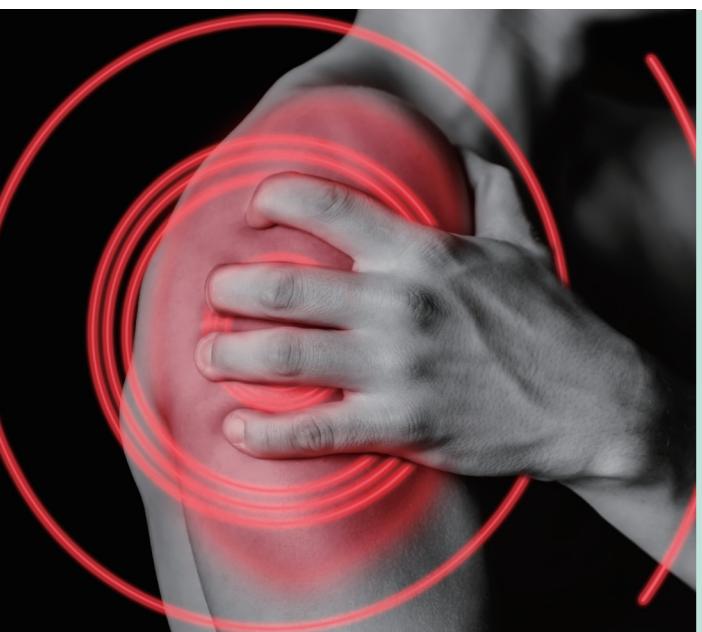
글 _ 박종철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확대되는 생활체육



“
올바른 운동 동작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안전·사회통합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특히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0년 전에 보다 약 14.8% 증가(2021년 기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 외부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Home Training)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형태 또한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체육의 참여 확대는 사회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의 절반 이상(57.3%)은 부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명 중 1명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25.4%), 무릎(23.1%), 상반신(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운동 동작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유지의 가장 기본적 습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의 주요 원인은 접촉성, 비접촉성 부상 등 다양하지만 국제학술지(Orthopedics and Clinical Science)에 보고된 Watson(2001)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 가속도, 부상 이력, 유연성 등이 부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생활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펭귄 등 일부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완벽한 에너지 소비를 하는 동물이다. 미국 아리조나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에 비해 에너지를 4분의 1만큼 쓰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완벽하고 효율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틸 수 있는 근력이 요구되며 근력의 저하, 불균형은 잘못된 자세를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통증의 발생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으로 볼 수 있다. 올바른 자세는 최소한의 근육 활동과 적은 관절의 부하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인체의 구조물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균형된 상태(Kendall et al,1993)로 올바른 자세로 근골격계의 손상과 변형을 예방하고 내장기관의 활동과 호흡,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골격(skeleton)은 인체의 근육(muscle)에 의해 지지되고 움직이게 되며, 근육의 불균형은 신체를 부상(injury) 또는 긴장(tightness)에 취약하게 만들며, 사용하지 않으면 자세 근육(posture muscle)이 약해지고, 길거나 짧아지거나 긴장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용 시 근육의 불균형을 일으켜 기능장애(dysfunction) 및 보상작용(compensation)을 초래한다.

Athletic Injury

“

올바른 자세는 최소한의 근육 활동과 적은 관절의 부하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인체의 구조물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균형된 상태(Kendall et al,1993)로 올바른 자세로 근골격계의 손상과 변형을 예방하고 내장기관의 활동과 호흡,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



직립보행과 에너지 효율(출처 www.hani.co.kr)

전문가에게 자세교정 받은 후 운동해야



“

최근 잘못된 홈트레이닝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성이 가장 큰 부위인 어깨부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

우리 몸의 움직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된 동작은 근골격계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주동근, 길항근, 협력근 등 근육이 올바르게 작용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동작에 대한 세심한 관찰은 근육의 길이 변화 등 근육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분석은 그 어느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 홈트레이닝은 주로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해 혼자 운동하기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한 운동프로그램이 나에게 맞는 운동인지, 적절한 강도와 무게인지 내가 올바른 자세로 따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잘못된 홈트레이닝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성이 가장 큰 부위인 어깨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어깨에 큰 압력이 가해져 근육통부터 어깨 탈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세 유지는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운동이 이루어지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자세의 변형이 수반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하기 위해, 나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용해 나의 관절 가동범위 등을 우선 확인하고 동작을 촬영한 후 자세를 분석해 본다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자세를 교정 받은 후 운동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레저 활동의 첫 '발'을 딛자!



글 _ 박일봉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

전, NC다이노스 스트레스 디렉터
현, (사)대한기능재활운동협회 협회장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산'과 '바다'일 것이다. 부산은 많은 크고 작은 산이 있으며, 부산 시민들은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소풍'이나 '사생대회'와 같은 활동으로 그곳에서의 경험들을 익히 가지고 있다. 바다 또한 그렇다. 많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부산 시민이라면 크고 작은 추억들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익숙하여 그곳에서의 활동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수도 있다. 오늘은 산과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운동기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 '부산'

흔히 '산'과 '바다'라 함은 자연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미 부산은 초고층 아파트와 거대한 백화점들이 즐비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되었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자연환경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들도 스스로 눈을 감고, 숲이 울창한 곳에 자신이 지금 있다고 상상해보시라. 얼마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산을 오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흙과 돌을 밟아야 하고, 때로는 균형을 잡거나 높은 턱을 넘기 위해 나무를 잡기도 해야 하며, 또한 울퉁불퉁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할 것이다. 한번쯤은 산행에서 미끄러진 기억쯤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산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운동기능을 요구한다. 최근 부산에서는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걷는 것이 유행이다. 맑은 날씨에 '온천천' 산책로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뛰거나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편평한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평坦하지 못한 산행을 더 권고하고 싶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바로 불안정한 지면을 걷거나 뛸 때, 사람은 많은 안정성, 유연성 및 인체에 복잡한 운동기능들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산행 중에 소나기라도 내린다면, 위에 언급한 기능들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산행, 발 관절·감각기관 사용하기 쉬워



사람의 발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관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감각기관들 또한 발바닥과 발의 관절들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발에 이렇게 많은 관절들과 감각기관들이 위치한 이유는 그만큼 그 역할들이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울퉁불퉁한 산행을 할 때와 편평한 산책로를 걸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관절들과 감각기관들을 사용할까? 정답은 너무나 쉽게 산행일 때일 것이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들은 '기능저하'라는 상태로 연결된다. 즉 사람은 움직임을 통해 그러한 기능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필자는 현대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사람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운동기능저하'를 가장 우선으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발에 이렇게 많은 관절들과
감각기관들이 위치한 이유는 그
만큼 그 역할들이 사람에게 중요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통불
통한 신행을 할 때 더 많은 관절
들과 감각기관들을 사용한다.

“

그런 면에서 산은 가장 좋은 운동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센터 중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비용도 들지 않는다. 산은 365일 늘 우리를 반겨준다. 산에서의 운동은 흙과 돌을 밟고, 미끄러운 지면을 느끼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몸을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소위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근육’이나 ‘척추안정화 기능’ 또한 늘 발휘해야 한다. 즉 아주 복합적인 운동기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운동센터가 있을까? 어떤 TV프로그램(‘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사람들이 큰 병이나 질환 없이 웰빙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서핑, 운동기능 사용효과 톡톡

최근 부산의 여러 해수욕장에서 ‘원드서핑’이나 ‘서핑보드’, ‘SUP’이라는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저 활동은 공통적으로 모두 바다위에서 보드를 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또한 발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다의 파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형태로 사람에게 전달된다. 사람은 그 불규칙함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운동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거기에는 바다는 바람까지 품고 있어, 사람에게 복합적인 운동기능을 요구한다.



“

레저 활동은 공통적으로 모두
바다 위에서 보드를 타는 형태
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또한 발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바다의 파도는 예측
할 수 없는 불규칙한 형태로
사람에게 전달된다. 사람은 그
불규칙함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운동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의 발은 놀라운 기능들의 첫 단주의 역할을 한다.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줄은 물론이며, 수많은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위험을 빠르게 알려주어, 사람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발이 가진 많은 관절들과 감각기관들이 ‘운동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불과 한 뼘 남짓한 이 발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노인들의 낙상이 잦은 이유가 근력의 약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발에서의 감각 및 관절들의 기능저하 또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지척에 많은 산과 바다가 있는 부산,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산과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을 통해 발의 기능을 깨우고, 또한 ‘운동기능’까지 향상시켜 건강한 도시생활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시민체육대회의 절대 강자 사상구체육회



지난해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사상구체육회는 체육대회 개최 이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강팀이다.

부산시민체육대회 3연패(2015~2017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1위(2017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그 저력을 보여준 사상구체육회의 필승 전략이 궁금하다.

소통하는 체육회 ‘민선 1기’ 출범

1995년, 북구 관할에 있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사상구’가 발족되었다. 이후 2016년, 사상구생활체육회(1997년 창립되었던 구, 사상구생활협의회)가 1995년에 창립된 사상구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사상구체육회 ‘민선 1기’가 출범하였다. 사상구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개선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구상 및 추진 중이다. 그중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전문체육 활성화, 학교 운동부 육성 등 체육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상구체육회는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38명의 임원진을 비롯해 사무국장, 일반지도자 4명, 어르신지도자 3명, 회원 9,562명(20개 종목, 289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임원진뿐 아니라 지도자 모두 출중한 역량을 갖췄으며,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안 되면 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민선 1기 사상구체육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출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제약들로 인해 새롭게 계획한 사업은 물론, 기존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상구체육회는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먼저, 실내 공간에서 하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직접 실외 공간 물색에 나섰다. 그렇게 찾아낸 10곳의 실외 공간에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체조, 에어로빅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수강생들 역시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며, 어르신 수강생들은 수업을 포기하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춘 ‘걷기 좋은 사상 한바퀴’와 ‘신나는 사상! 건강 3종 경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비대면 걷기교실, ‘걷기 좋은 사상 한바퀴’는 지정된 코스(약 30km)를 한 번에 또는 다섯 번에 나눠서 완주한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았다. 1,000 명 이상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걷기 좋



은 사상 한바퀴’는 ‘사상구민 신바람 걷기대회’, ‘사상강변 벚꽃길 걷기대회’ 등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사상구민 걷기대회’를 대표하는 ‘걷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체육 증진

사상구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모터보트, 제트스키, 카약, 조정, 동력 고무보트 등 수상레포츠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삼락복합문화센터’와 사상구 전용 축구장 준공(2024년 예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마련되어 있는 엄궁 유수지에도 ‘엄궁복합문화센터’가 준공(2024년 예정)된다면 구민들을 위한 체육 환경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상구체육회는 볼링, 파크골프, 탁구, 배구, 족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교실과 유아체험활동 지원, 이동식 건강체력교실, 장애인체육교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사상구체육회는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장인과 주부,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체육 환경의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증진으로 이어져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연혁

2016. 3. 25 송숙희 회장취임/통합사상구체육회 창립
2018. 7. 1 제2대 김대근 구청장 취임
2020. 1. 16 제3대(민선1대) 강진태 회장 취임
2021. 5. 11 특수법인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 설립

수상내역

2015 ~ 2017, 2021 부산시민체육대회 우승
2017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우승

Mini Interview

강진태 회장



사상구체육회 창립 당시 이사직을 시작으로 수석부회장과 고문을 거쳐, 2020년 1월에 ‘민선 1기’ 회장직에 추대되어 지금까지 사상구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라톤, 사이클, 골프 등의 운동을 해오며 ‘운동은 삶의 일부분으로 삶과 함께 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중요하기에 취임 이후, 체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체육 발달이 곧 체육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부를 하나라도 만드는 게 소망입니다. 사상구체육회의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갑용 사무국장

사상구체육회 지도자들은 20개소가 넘는 곳에서 어르신, 장애인, 유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과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으나, 사상구체육회는 ‘무엇이든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였고,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종단되었던 프로그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볼링, 파크골프 등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축구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도자들

서민규(어르신지도자) _ 생활체육은 운동뿐만 아니라 마주하여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빠른 안정화로,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소통하는 체육 문화가 다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유경(어르신지도자) _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이지만 구민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내며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화(어르신지도자) _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구민들과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함, 즐거움, 성취감을 느끼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기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여 좋은 수업으로 보답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온윤지(일반지도자) _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듣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체육 활동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현심(일반지도자) _ 새로운 음악과 동작으로 회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함과 열정으로 수업을 구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흥미 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약’인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축구 강호로 우뚝서다 반여축구회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1976년 창단하여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고 있는 반여축구회. 회원 간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다는데… 반여축구회 회원들을 만나 그들의 우승 비결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살펴봤다.

전 세계의 인기 스포츠인 ‘축구’

발을 이용하여 축구공을 상대 골대에 넣어 점수를 얻고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 축구. 발로 차면서 노는 축구는 고대에서부터 발달해 세계 여러 곳에서 즐겨왔다. 하지만 축구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끔 규칙을 정하고 행정체계를 발전시켜 현대적인 스포츠로 보급한 곳은 종주국 영국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인의 스포츠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축구는 야구와 함께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아시아의 축구 강국으로 월드컵 최대 본선진출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아마추어 리그팀과 학교 축구부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2017년부터 시작된 대한축구협회 주도의 디비전리그 시스템을 통해 5부, 6부, 7부 리그인 K5리그, K6리그, K7리그가 생겨났다. 이번에 소개할 반여축구회도 K7리그 소속이다.

선수 출신이 주축…회원 만족도 높아

1976년 창단한 반여축구회는 해운대구 반여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호회다. 해운대 장산초등학교 축구부 선수 출신과 비선수 출신 졸업생 약 20명이 모여 축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반여동 주민들과 여러 축구 동호인, 선수 출신 축구인들이 들어오면서 40명이 소속된 큰 아마추어 팀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인지 반여축구회는 선수 출신 회원들이 특히 많다. 약 1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선수 출신이다. 이렇게 선수 출신이 많다보니 JTBC ‘뭉쳐야 찬다’와 같은 인기방송의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도 쉽게 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입회원이 들어왔을 때 축구의 기본기부터 실전 시합을 치르는 것까지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점은 선수 출신이 많은 팀의 장점이기도 하다.



축구,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은 필수

여기까지 읽으면 회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축구실력이 출중해야 할 것 같지만, 김길남 회장이 회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성'이다. 축구는 무엇보다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선후배들을 쟁기고, 실전 경기에서 주위 선수들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실성 또한 필수 덕목이다. 회원들은 1주일에 한번 주말을 이용해 모이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장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연습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는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지 않아 축구장을 예약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1주일에 한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모여, 양산 하북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해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반여축구회 회원들은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 회원들 간의 애정도 돈독하다. 매주 축구연습을 하면서 부대끼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각자의 집안 경조사를챙기는 등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2021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 축구대회 우승 쾌거

그렇다면 46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여축구회의 실력은 어떨까. 반여축구회는 해운대구 아마추어 축구계의 전통 강자다. 이미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 대회에서 3회 연속으로,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했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한 2021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 축구대회(30·40대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모두 참가한 대회에서 해운대구 단일팀으로 나가 우승을 한 것이어서 특별히 값진다. 김길남 회장은 시·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선 20대~50대까지 나 이별 쿼터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경기에 참가한 당일 컨디션을 고려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한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여축구회는 지난해 우승의 기세를 몰아 올해도 개최될 여러 대회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하지만 꼭 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건강을 위해 즐겁게 운동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입회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반여축구회가 올해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년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 우승행기



Mini Interview

김길남 회장

“ 저희 반여축구회는 축구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

축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축구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스포츠입니다. 특히 국내 프로축구나 해외리그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감독의 전략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선수들이 조직력을 발휘해 골을 넣는 모습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희 반여축구회는 축구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습니다.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3개월 이상의 훈련을 통해 경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호 감독과 진해근 코치를 비롯한 많은 선수 출신 선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반여축구회는 각종 축구대회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주최의 슈퍼컵 등에 참가하면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운대구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축구라는 스포츠를 많은 이에게 전파하겠습니다. 반여축구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여축구회 소개

팀명 BANYEO FC

창단년도 1976년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장산초등학교에서 운동)

회원수 20대(5명), 30대(13명), 40대(15), 50대(7명) 총 40명
전문 선수 출신의 회원 구성비가 높음

주요 수상 이력

* 준우승을 비롯해 작은 대회 우승은 생략

2019~2021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 3연패

2019~2020 해운대구청장기 2연패(2021년 3위)

2021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 40대 축구대회 우승

2021 부산광역시장배슈퍼컵 축구대회 우승
(30·40대) - 단일팀 초대 챔피언

2021년 해운대구축구협회장기 우승



2021년 해운대구 40대 우승



주민들의 밝은 미소와 소년들의 꿈을 위하여

해운대구스포츠클럽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생활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왔다. 또한 이곳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축구 인재들이 자신들의 꿈을 무력무력 키워나가고 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저렴한 회비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과거 해운대구 반송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여가 및 체육 시설이 열악했다. 같은 해운대구의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아, 주민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은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돋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설립됐다.

현재 클럽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회원들에게 수영, 헬스, 필라테스, 요가, 에어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축구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저렴한 회비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회원 상호간 교류 및 사회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위기를 넘어 더 큰 성장을 꿈꾸다

해운대구스포츠클럽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클럽은 회비 할인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전체 회원의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 수가 약 1,300명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회원 수가 600명까지 줄어들어 운영상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클럽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종목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클럽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2020년부터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인해, 할인율에 따른 손실분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시설도 교체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관내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수익다변화를 꾀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만들 어갈 계획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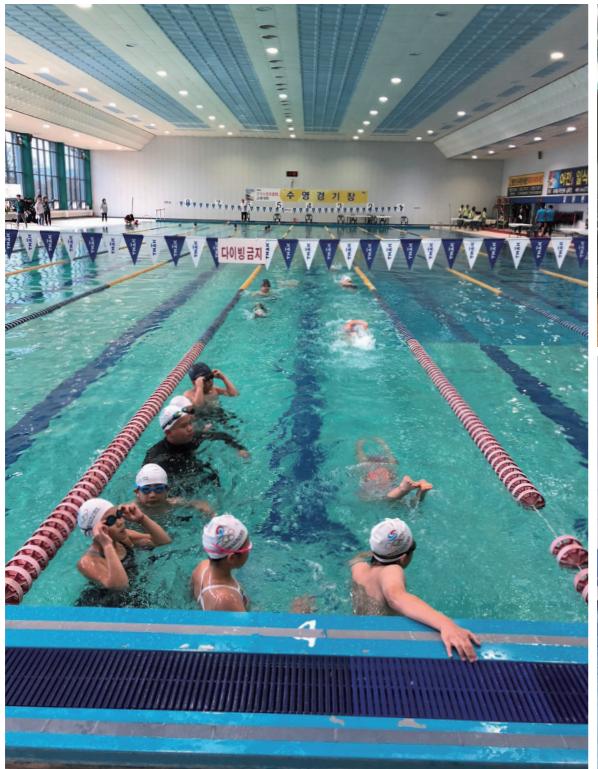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는 바, 과거에 진행했던 지역 축구대회 후원,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 행사 지원, 등록회원들을 위한 감사축제 등도 다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배출 기대

무엇보다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지난 2017년 1월 지역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해 창단한 유소년 축구클럽 '해운대구FC U-15팀'이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겼지만 당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중등부 축구 육성반을 만든 것은 최초였다고 한다. 소질이 있어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 축구를 하지 못하는 부산 지역 유·청소년들에게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팀의 창단 취지다.

U-15팀은 '공부하는 축구 클럽'이다. 축구 실력만큼 인성과 학업 성적도 우수해야 해운대구FC 축구부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겠지만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다. 대회 참가나 전지훈련 비용 등에서 선수들의 개인부담은 거의 없다. 월회비도 저렴하다. 장학제도도 있어 어려운 환경의 선수들을 꾸준히 돋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U-15팀은 2019년 대한체육회 우수 유소년 축구 클럽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부산·울산 권역 시합에서는 16개 팀 중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은 U-15팀 선수들 중에서 장차 프로 축구팀 또는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배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선수들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운대구스포츠클럽 연혁

- 2017.03 스포츠클럽 선정
- 2017.07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2017.08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수탁운영 선정 및 축구전문선수반 운영
- 2018.06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초·중 축구대회 3위
- 2018.08 제2회 부산지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수영대회 초등여 배영·자유형 1위
- 2020.11 대한축구협회 KFA 퓨처팀 선발(2명)
- 2021.05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종목 부산대표 참가
- 2021.06 부산광역시종별 중등축구대회 준우승
- 2021.07 청룡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 16강 진출
- 2021.11 대한축구협회 KFA 골든에이지 선발(1명)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클럽으로 발전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은 초대 민선 회장에 선출과 더불어 올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영장, 사물함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헬스 기구도 더 들여놓을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회원들을 위해 운영하던 두 대의 셔틀버스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중단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대라도 다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운동 강사 및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는 시설 덕분에 인근 타 지역 주민들도 소문 듣고 찾아와 등록한다는 해운대구스포츠클럽.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서비스를 실시하여 앞으로 한층 더 사랑받는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무열 해운대구스포츠클럽 회장

올해 2월 28일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의 첫 민선 회장으로 취임한 박무열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며 클럽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벽한 업무 파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일대일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평소 생활스포츠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공간으로서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축구 꿈나무인 U-15팀 선수들이 연습할 운동장의 개선을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선수 육성반 학부모님들과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축구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남용은 이제 그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관리, 감시, 제재하기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에 창설된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 기구에서 6년 주기로 여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2025년 부산이 유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어떤 곳인지, 유치 가능성 있는 WADA 총회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살펴보자.



스포츠계 금지약품 규제·관리 위해 1999년 창설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WADA)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만연한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남용을 감시, 규제 및 징계하기 위해서 1999년 11월 스위스 로잔에서 설립됐다. 당시에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경기능력의 일시적 향상을 위해서 호르몬제·신경안정제·흥분제와 같은 약물 복용이 만연했었다. 이에 금지약물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현재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하계 및 동계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활약하고 있으며 운동선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들 교육을 담당하며, 운동선수와 코치, 그리고 경기 운영자에게도 반도핑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도핑방지기구와 도핑방지 프로그램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22 세계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장인화 유치위원장과 구본길 홍보대사

회원국으로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여러 국가가 있다. 한국은 회원국으로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2019년까지 활동했다.

부산 '2025 WADA 총회' 유치에 총력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매년 6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글로벌 도핑방지 분야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패럴림픽(IPC) 위원, 국제경기연맹 대표, 각국 스포츠 장관, 국가도핑방지기구 등에서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에서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5개년 전략 및 성과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다룬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는 그동안 스위스 로잔(1999), 덴마크 코펜하겐(2003), 스페인 마드리드(2007), 남아프리카 공화국(2013), 폴란드 카토비체(2019)에서 개최됐다. 다음번 총회는 2025년 개최될 예정으로 후보지 선택은 미정인 상태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카자흐스탄(알마티), 아제르바이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핀란드(템페레)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광역시체육회,マイ스얼라이언스 등과 협력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하루를 지정해 도핑방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2021년 그리스에서 열린 WADA총회

알리기 위한 '세계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부산시는 4월 12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약한 국민없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2 세계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인화 유치위원장(부산광역시체육회장 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025 WADA 총회 유치를 위해 배구 김연경 선수와 펜싱 구본길 선수를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부산시의 본격적인 총회 유치활동을 알렸다.

부산시가 총회를 유치한다면 '2023년 세계장애인대회',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부산이 국제스포츠계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이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세계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장인화 유치위원장과 주요 내빈들

해양스포츠의 메카 부산에서 요트 국가대표 조원우 선수를 만나다

글 _ 제1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수현



‘요트 신동’이라 불리며 부산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원우(29·해운대구청) 선수는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요트의 RS:X(윈드서핑)에서 메달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요트뿐만 아니라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쳐야 찬다 2’ 고정멤버로 활약 중인 조원우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Q 요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요트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버지와 해운대 해수욕장을 걷다가 우연히 바다에 떠 있는 윈드서핑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체험을 해보게 되었다. 오직 바람만 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다 위의 자가 용처럼 느껴졌고 매력이 있었다. 아버지가 운동을 하시진 않지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요트에 매력을 느낀 나에게 끊임없이 지원해주셨다.

Q 조원우 선수의 주 종목인 요트 RS:X급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RS:X는 윈드서핑의 세부종목으로 가장 속도가 빠르고 체력이 요구된다. 국가대표 훈련이라고 하면 합숙에 들어가 새벽, 오

전, 오후에 세 타임 운동한다. 새벽 운동은 조깅하며 몸을 풀고 오전, 오후 운동으로는 바람이 잘 부는 날에는 해상훈련, 바람이 좋지 않은 날에는 해상훈련과 체력운동을 한다. 체력운동은 사이클, 런닝머신, 유산소 위주로 진행하며 근지구력도 필요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함께 하고 있다.

Q 조원우 선수에게 국가대표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예전에 국제대회에서 우승 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가가 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우리나라 요트를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있고 나와 커리어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자신감을 주는 존재이다.



Q ‘뭉쳐야 찬다 2’ 출연 후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팬이라고 많이 해주신다.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셨을 거다. 그리고 요트하면 제 이름을 많이 알아봐 주셨고 제 이름을 잘못 외우시는 분들은 요트라고 항상 불러주시다. 비인기 종목인 요트선수에게 ‘요트’, ‘요트선수’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다. 출연 계기는 2020 도쿄 올림픽 대회 준비 중이었던 당시, 제가 예전에 축구선수를 했다는 기사를 보시고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 전화가 왔다. 축구선수를 했었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평소 훈련에 축구까지 더한다면 체력훈련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Q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시고 출전권을 획득하셨는데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는 도쿄올림픽 대회 다음으로 출전하는 큰 대회이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출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으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믿고 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를 마지막으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요트 RS:X급은 사라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가져오고 싶다.

Q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부산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요트의 매력은 무엇인가?

부산은 해수욕장과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해양도시로 유명하다. 많은 이들이 요트는 돈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장비와 ‘요트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넓은 바다를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맛도 좋지만, 바다 위에서 육지를 보는 맛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바다에서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요트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Interview

조원우(29·해운대구청)
요트 국가대표 선수

많은 분들께서 요트는 돈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장비와
‘요트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스포츠 **양궁**

활과 화살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과녁을 향해 쏴 득점을 겨루는 종목, 양궁. 양궁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스포츠 종목이다. 한국은 올림픽 대회 종목으로 재편입된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 이후 27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43 개의 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선수를 제외하고 실제 양궁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이가 많을 것이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양궁에 대해 알아본다.

양궁의 기원



양궁에서 사용하는 활과 화살은 원시사회에서는 생존의 수단으로, 고대와 중세에선 전쟁무기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는 스포츠 활동으로 사용되는 역사적 산물이다. 활과 화살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사시대에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생활도구, 특히 사냥도구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구석기 말엽(1~3만 년 전)이나 약 10만 년 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활과 화살은 사냥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영토 확보와 부족 간, 민족 간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전투무기로 발달, 원시사회에서 고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화약무기가 등장하면서 활과 화살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중세 말기부터는 생산수단 또는 대중적인 놀이수단의 하나로 명맥을 잊게 된다.

양궁이 근현대를 거쳐 스포츠로 행해진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양궁을 스포츠로 가장 먼저 행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아처리 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양궁이 올림픽 대회에 등장한 것은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대회에서이며,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대회와 1908년 영국 런던 대회, 그리고 1920년 벨기에 엔트워프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중단됐다. 그러나 52년 후인 1972년 제20회 뮌헨 올림픽 대회에서 경기방식 통합과 규정이 정립되면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궁의 기본연습



양궁은 아주 짧은 시간에(스탠스부터 슈팅까지의 시간은 10초~15초) 장비 사용과 자세의 결합으로 기계적인 발사 동작을 순간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즉, 여러 가지 기초 기술을 습득하여 종합하는 운동이므로 기본 기술의 연습은 선수나 초보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훈련을 위해 발사 동작의 원칙을 준수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활의 용구와 보조 기구를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을 익혀 기본 기술 연마에 힘쓴다.

발사 동작의 기본 원칙으로는 △양 손, 양 팔 동작은 항상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낸다 △불필요한 동작은 삼가하고 동작 간의 거리와 시간을 최소로 한다 △발사의 동작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등이 있다. 연습을 할 때는 기본자세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빈 활 당기기 연습과 발사연습, 거리연습, 훌딩, 릴리즈 연습, 클리커 사용 훈련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양궁 연습 시 주의사항

- 01 전문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한 가지씩 정확하게 익히며, 잘못된 자세는 시간이 걸려도 확실히 교정한다.
- 02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지 않도록 한다.
- 03 기초 체력 증강을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 04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에 임한다.
- 05 적중만을 생각하지 말고 기본자세에 충실해야 한다.
- 06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발사하는 자세를 갖춘다.
- 07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08 선의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기른다.
- 09 남의 활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며, 주위 장비에도 주의한다.
- 10 의문 사항은 항상 지도자에게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11 복장은 간편하고 편안한 운동복을 착용한다.

양궁의 경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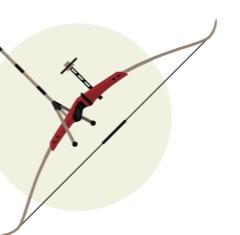
양궁 경기는 타깃 아처리, 필드 아처리, 컴파운드 아처리로 크게 나뉜다. 타킷 아처리는 표적 경기를, 필드 아처리는 산이나 들판에 표적을 세워 놓고 하는 경기를 말한다. 컴파운드 아처리는 활의 양쪽 끝에 원형의 도르래를 달아 활시위를 당길 때는 힘이 덜 드는 반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는 활씬 강하도록 만든 활을 사용하여 하는 경기를 말한다. 이중 타깃 아처리가 올림픽 경기 대회 정식 종목이다. 정해진 거리에서 일정 수의 화살로 과녁을 쏜 다음 점수를 계산하는 경기방식을 라운드라고 하며, 올림픽 라운드, 그랜드라운드, 더블 라운드·싱글 라운드 등으로 나뉜다. 1930년대부터 올림픽라운드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올림픽경기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궁의 기본인 활과 화살

활을 쏘기 위한 용구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적중률이 높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활과 화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품이 조화를 이뤄야 기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각자 갖고 있는 힘이나 팔의 길이 등 신체 조건과 기타 요소들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양궁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양궁에 필요한 용구를 자세히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활

활은 오늘날 글라스파이버와 나무 또는 대나무를 합성해 제작된다. 통상 사용하는 활은 길이 66cm의 화살을 한껏 잡아당겼을 때의 강도로 탄성 기준을 삼는데, 남자는 14~23kg, 여자는 9~18kg으로 다양하다. 발사된 활은 초당 52m 정도의 속도로 200~900m쯤 날아간다. 관통력도 활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화살 66cm, 강도 18kg의 활로 1mm의 철판을 꿰뚫을 수 있다. 활은 개인의 체력과 팔의 길이 등이 자신의 힘에 맞는 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살

화살은 나무 화살, 대나무 화살, 글라스 화이버 화살, 알루미늄 화살, 카본 화살로 나뉜다. 알루미늄 화살이 초보나 실내 대회, 컴파운드 활에 많이 사용되며 카본 화살은 현재 타켓 아처리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화살을 선택할 때는 화살의 길이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초보자는 양 팔을 앞으로 펴서 목 앞에서 손가락 끝 첫째 마디까지의 길이보다 2cm~3cm 정도 긴 것을 사용한다. 또 선수들의 활의 강도, 당기는 힘에 의하여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활의 강도와 체력을 보완하였을 때에는 화살 길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측정 방법은 정확한 자세를 반복하며 화살의 길이를 정한다.



자료출처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양궁소개
- 경기규정, 양궁역사, 용어정리 참조
네이버 스포츠백과 <양궁>



오늘의 10분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운동이 아무리 좋다지만 기초체력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선 독이 될 수 있다.

그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 몸을 데워주면서 몸에 무리가 덜 가도록 스트레칭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보자.



하나의 동작은 60초 미만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무리한 운동이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의 동작을 1분 이상 지속하는 것도 좋지 않다. 60초 이상 길게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근육의 힘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하나의 동작은 60초 미만으로 하는 게 좋다. 스트레칭은 몸의 균형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만큼 오랜 시간은 아니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STRETCHING

척추에 좋은 고양이 자세



01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과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다. 양발 등과 발가락이 완전히 바닥에 달게 한 후, 허리를 내려 아치를 만든다.

02 복부에 힘을 주면서 등과 허리를 위로 둥글게 만들어 자세를 유지한다.

03 엉덩이를 그대로 세운 채 상체를 기어가는 듯한 모양새로 숙여준다. 시선은 손끝을 향한다.

04 엉덩이를 내리며 등을 위에서 누른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한 후 동작을 유지한다.

05 상체를 일으켜 세워 척추를 곧게 세워준다.

팔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01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조금 좁게 벌리고 똑바로 선 채 양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감싼다.

02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쪽 손을 앞을 향해 뻗고 손바닥을 뒤로 젓혀 나머지 손으로 붙잡아 준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03 한쪽 팔을 당겨 구부리고 나머지 팔을 이용해 몸 쪽으로 당겨 준다.

04 한쪽 팔을 뒤로 구부리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 아래로 잡아당긴다.

05 한쪽 팔을 올려 손을 등 뒤로 보낸다. 이때 팔꿈치는 하늘을 향하며 반대쪽 손을 이용해 눌러준다.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허벅지 운동



01 양발을 어깨너비의 두 배만큼 좌우로 벌리고 선다. 양손은 골반뼈에 놓는다.

02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무릎만 90도에 가깝게 구부린다. 이때 상체가 숙여지거나 엉덩이가 뒤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03 다리를 편 후, 어깨너비만큼 좌우 보폭을 줄인다.

04 한쪽 다리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90도가 되도록 올려 한 발로 몸의 균형을 잡는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시행한다.

05 다리를 어깨너비의 두 배로 벌리고 한쪽 무릎을 굽힌다. 굽힌 다리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천천히 동작을 시행한 후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한다.



코로나 시대 건강 지키기, 그 첫 번째는 '손 씻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난달 22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럴 때 일수록 중요한 것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손 씻기다.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최고의 감염병 예방효과 자랑

손 씻기(hand washing)는 손 위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반 비누 또는 항균비누를 사용하여 물로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손 씻기는 병원체의 전파위험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자가예방접종'에 비유하기도 한다. 손 위생의 방법에는 손 씻기 말고도 손 소독과 손 마찰이 있는데, 손 소독(hand disinfection)은 피부소독 효과가 있는 비누나 제품을 사용하여 손의 오염물질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손 피부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손 마찰(hand rubbing)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 없이 손에 문지르는 피부소독제만 사용하여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 비율 15~20% 억제

손 위생은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최근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 식중독 등과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15~25% 가량 낮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50~70%, 폐렴, 농가진, 설사병의 40~50% 이상이 적절한 손 씻기 실천만으로도 예방 가능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준비할 때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 다녀온 아이를 닦아준 후 △베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코를 풀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등에는 꼭 손 씻기를 실천해야한다.

15~30초 손 씻기만으로도 세정효과 톡톡

손 씻기는 손의 오염상태, 비누의 종류와 양, 세척용 물이 흐르는 물인지 고여 있는 물인지 여부, 그리고 손 씻기 후의 건조방법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한 손 씻기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국가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권장하는 손 씻기 방법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으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권장하고 있다. 첫 단계, 비누칠한 손의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준다.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준다.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여섯 번째,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20초가량 손을 문지르며 구석구석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계나 타이머가 없을 경우, 손을 구석구석 씻으며 '생일축하 노래'를 두 번 정도 흥얼거리는 것이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의 팁이 될 수 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종이타월을 사용해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오염시킨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손세정제는 모든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진 못하므로 손 씻기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또 육안상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의 오염물이 묻었다면 손세정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세정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손 씻는 방법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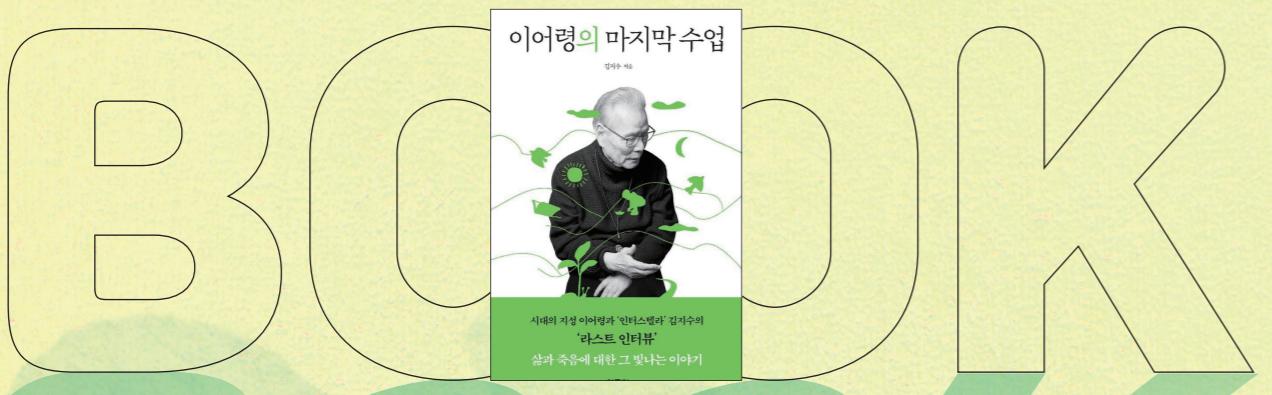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손씻기>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in(<https://www.nhis.or.kr/magazin/177/html/index.html>)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진실, 마지막 인생 수업

- 인터스텔라 김지수의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저자 김지수 / 출판사 열림원

이 시대의 대표지성 이어령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오랜 암 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스승은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한다.

독자들에게

자신이 새로 사귄

‘죽음’이란 벚을 소개하며,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결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

프롤로그_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1. 다시, 라스트 인터뷰
2. 큰 질문을 경계하라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4. 그래서 외로웠네
5.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7. 파뿌리의 지옥, 파뿌리의 천국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닌 고향
9. 바보의 쓸모
10.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11. 스승의 눈물 한 방울
12. 눈부신 하루
13. 지혜를 가진 죽는 자
14. 또 한 번의 봄
15. 또 한 번의 여름-생육하고 번성하라
16. 작별인사

에필로그

지난 2019년 가을,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라고 밝힌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환호했다. 7,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화제를 모은 이 인터뷰는 그의 더 깊은 마지막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로 이어지며 이 책을 탄생시켰다. 1년에 걸쳐 진행된 열여섯 번의 인터뷰에서 스승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새로 사귄 ‘죽음’이란 벚을 소개하며,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결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스승 이어령은 삶과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은유와 비유로 가득한 답을 내놓으며, 인생 스승으로서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낸다. “유언의 레토릭”으로 가득 담긴 이 책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스승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이며, 남아 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답이 될 것이다.

Composition of Books

SPORTS NEWS**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실시**

구군체육회·회원단체 130여명 참가
개별 업무교육·집체 인권교육 2차례 실시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3월 18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직무연수는 △체육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및 소양 함양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 및 상호 친선도모 △기초 직무지식과 필수교육을 통해 행정 능력 함양 등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개최한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별 업무교육과 집체 인권교육 2차례로 나눠 실시됐다. 1차 교육은 지난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회계교육, 회원단체운영 실무교육, 전자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10개 단체로 나눠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2차 집체교육은 (성)폭력 예방 및 균절 교육으로 3월 18일에 진행됐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작년 부산광역시체육회 법인 설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회원단체 직무연수 교육인 만큼 회원단체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부산체육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부산 '15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스키종목 4관왕 전준상 MVP 차지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3월 29일(화) 오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총 230명(선수 164명, 임원 66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 종합득점 421점을 획득하여 15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했다. 금번 대회에서 선전한 부산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대회참가 종목단체 선수단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상에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을 차지한 전준상(남산초6), 허부경(신도중3) 선수와 스키 알파인에서 3관왕을 차지한 최범근(동성초6) 선수를 비롯한 입상선수 학교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우리 선수단이 대회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 지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4관왕을 차지한 전준상(남산초6)가 MVP로 선정되어 트로피 및 시상품 등을 전달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우리 부산선수단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동계종목 활성화와 모두가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섬과 동시에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와 부산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학과 소식

*본 페이지는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의 교육을 시민 및 체육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바다가 미래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는 피트니스·재활 트레이너 전문가 육성, 체능보유자 특수직공무원 육성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 인정 레저 스포츠 특성화학과다. 이제부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해양레저산업 실무전문가 육성을 선도하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중심인 해운대 해양레저관광특구에서 창의적 해양레저·스포츠관광·트레이너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부가 인증한 동남권 지역 체능계열 특성화 학과이다. 최근 교육부·해양수 산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레저스포츠와 관광 산업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발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 개발사업 유치와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 하는 추세이다. 이는 곧 동남권 지역의 스포츠관광·해양레저·피트니스 산업 관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전문 분야별 실무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센터 종합시설업체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골프·스키·해양)·테마파크의 레저사업부, 피트니스 전문업체 등 각 스포츠산업 분야별 지속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졸업 시 산업현장에서 즉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공직무 중심 특화된 전문 인력육성을 지향한다.



학과 자랑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는 산학맞춤형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부 선정 미래직업 50선에 포함된 '해양레저전문가'를 특성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스포츠관광 전문가육성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했으며 동남권 체육계열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을 수행(교육부, CK-1 해양스포츠레저산업전문가육성 사업 2014년~2018년, 15억원)했다. 그 밖에도 △문체부(체육인재육성재단), 스포츠과학지원사업(2009년~2011년, 2억원) △보건복지부, 헬스케어사업(2009년~2013년, 7억원) △문체부, 수영구 지역특화 SUP 스포츠관광 육성사업(2020년~2022년, 30억원) △한국관광공사, 바다 위 영화극장 이을프로젝트 사업(2022년, 9,0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가 원하는 학생은 △해양레저·스포츠관광 산업 등 미래직업에 관심 있는 레저스포츠인 △특임공무원(해경, 소방, 경찰) 진로를 희망하는 스포츠재능 보유자 △피트니스·재활트레이너에 관심 있는 체육재능 보유자 등이다.

졸업 후 진로

학과를 졸업한 후 졸업생들은 특임공무원(해경·소방·경찰), 피트니스·재활 트레이너, 해양레저·마리나·요트 전문가, 스포츠투어 전문가, 레저스포츠 시설관리자·지도자, 수상구조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득 가능 자격증

학과를 진학하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으로는 스포츠지도자(종목별), 스포츠경영관리사, 수상구조사, 잠수기능사 등이 있으며 국가면허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면허, 요트면허),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수상인명구조원, 레저스포츠 지도사, 레저스포츠 심판 등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2023학년도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입학 정원	수시모집 (정원내)				정시
	일반계고	면접(일반고, 특성화고)	교과(일반고, 특성화고)	실기	
30	7	10	2	10	1

2

지원 자격 및 선발방법

일반계고 전형	우리나라 일반계 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 인문계과정,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대안학교 (교육부인가 포함)	학생부 100%
면접 [일반고/ 특성화고] 전형	우리나라 고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70% + 면접 30% (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경찰행정) 학생부 60% + 면접 40% (호텔관광, 해양레저관광, 항공관광, 태권도전공, 동양무예전공)
교과 [일반고/ 특성화고] 전형	우리나라 고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100%
실기전형	우리나라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중 해당 분야에 열의 및 재능을 가진자	학생부 30% + 실기 70%

3

실기고사

① 60m달리기	직선주로에서 1회 달리기 측정
②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 인정

* 악천후 시 60m 달리기 대체 - 지그재그 달리기

NEWS

구·군체육회 소식

서구체육회

여성족구팀 BALO 창단

부산광역시서구축구협회 여성족구팀 BALO(발로)가 창단했다. 서구체육회는 3월 13일(일) 꽃마을 공영주차장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창단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된 가운데 서구청장,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ALO족구팀은 앞으로 힘찬 발돋움으로 희망과 의욕이 넘치는 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도구체육회

2022년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영도구체육회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영도구 주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운영종목은 △배구(X-sports광장 체육시설) △수영(영도국민체육센터) △테니스(동삼테니스구장) △파크골프(동삼동 파크골프임시구장) 등이다. 프로그램은 방역수칙과 안전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동래구체육회

2022년 온천천 야외 생활체육특강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3월 21일(월)부터 한 달간 동래구 온천천 카페거리에서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2년도 동래구체육회 야외 생활체육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프로그램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나서 댄스와 근력운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수업을 마쳤다. 동래구는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야외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동래구체육회는 봄철 생활체육특강을 실시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34회 부산광역시배 공수도 선수권대회 겸 제4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공수도 대회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3월 26일(토)~3월 27일(일) 제34회 부산광역시배 공수도 선수권대회 겸 제4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공수도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장산 대천공원에서 대면경기와 비대면경기로 열렸다. 대회는 홍순현 해운대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공수도 동호인 110여 명이 친목을 다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뜻깊은 대회였다.

사하구체육회

코로나19 종식 기원 보건·의료진에 200만원 상당 격려물품 전달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3월 3일(목) 보건·의료진 및 병원관계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종식에 힘쓰고 있는 보건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체육회 회원들은 사하구청을 방문해 의료진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방역의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병원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정구체육회

제4회 플러즈코리아배 한마음 청년부 축구대회 개최

금정구축구협회와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3월 13일(일) 제4회 플러즈코리아배 한마음 청년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오륜동인조잔디구장, 부산 외국어대학교 운동장 등에서 열린 대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회식은 생략했다.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이며 승부를 겨루었다. 대회결과 우승은 잔매축구회가, 준우승은 구서축구회가 각각 차지했다. 개인상은 최우수선수상에 잔매축구회 김명재 선수가, 우수선수상에 구서축구회 김동우 선수가 각각 뽑혔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3월 11일(금) 정기이사회를, 3월 18일(금) 정기대의원 총회를 각각 개최했다. 강서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선 2021년 회의록 등의 보고 안건(3건),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규정 개정 및 제정의 건(일괄 7건) 등의 의결 안건(6건)의 의결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선 2021년 회의록 등의 보고 안건(3건), 2021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등의 안건 심의사항(4건)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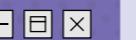
연제구체육회

2022년도 연제구체육회 홍보영상 자체제작

연제구체육회는 3월 22일(화) 연제구체육회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 연제구체육회 홈페이지(<http://yeonjesports.co.kr/html/>)에 게재했다. 또한 연제구체육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hannel/UCe5tGRaGnpd8Q3ZfKs_oNhw/videos)에 홍보영상을 업로드한 후 유튜브 주소를 종목별 동호인 7,000여 명에게 발송했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부산국민체육센터



① 2022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3월 24일(목)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밝은 문화 및 성별을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존중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상황대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확립 등에 관한 교육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른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센터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의 예방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시 상황 대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② 센터 주변 보도블럭 교체 작업 시행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월 28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 돌출 보도블럭 정비작업을 시행했다. 그동안 센터 뒤편은 행나무 주변 보도블럭은 굴곡이 심해 보행 중 발걸림이 발생,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왔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블럭 정비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영도국민체육센터



①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영도국민체육센터는 3월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근로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1학기 근로장학사업은 영도구 내 고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4명이 각각 참여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① 새로운 헬스기구 입고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3월 새로운 헬스기구를 입고했다. 지난 2월 스테어 클라이머에 이은 새 기구들은 로터리 풀다운과 브이 스쿼트 등 2종으로, 로터리 풀다운은 등 운동을 지속시켜주고 브이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부담 없이 허벅지와 둔근까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강서구국민

체육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들에게 다양한 헬스기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기구를 추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재밌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실내빙상장



① 홈페이지 내 강습신청 페이지 개설

부산실내빙상장은 부산실내빙상장 홈페이지(<http://icerink.busan.kr>)에 강습신청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 이는 최근 종료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의 효과로 늘어난 빙상 강습신청에 호응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강습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회원들은 매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51-337-4087)로 하면 된다.

NEWS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식

2022년 부산 장애인생활체육사업 100개소 지원

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부산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을 공모해 장애인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총 100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초 대한장애인체육회 '2022년 생활체육지원 사업 공모'에 따라 부산장애인 시설,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을 공모·접수해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체육교실 38개소 △생활체육동호회 48개소 △생활체육대회·행사 14개소를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6,700만원, 시비 1억200만원 등 총 2억6,900만원을 지원한다. 체육회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2 생활체육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을 △지난 3월 16일(수) 10:00~12:00 25명, 14:00~16:00 25명 △3월 17일(목) 10:00~12:00 25명,



14:00~16:00 25명 등 4회 걸쳐 실시했다. 교육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금 신청서,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생활체육 통합정보시스템 교육과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장애인유형	사업내용	비고
생활체육교실	지체장애인	보치아교실 외 5개소	총 38개소
	지적장애인	배드민턴교실 외 8개소	
	시각장애인	쇼다운교실 외 2개소	
	아동·청소년	플로어볼교실 외 4개소	
	여성장애인	슬런교실 외 4개소	
	직장장애인	골프교실 외 4개소	
	어르신장애인	게이트볼교실 외 2개소	
수중운동	물놀이야교실	외 1개소	

구분	사업형태	사업내용	비고
생활체육대회	단체·기관 (개최/참가)	부산산재협회 룬볼대회 (개최)	총 14개소
		부산시각장애인볼링대회 (개최)	
		부산척수협회 한궁대회 (개최)	
		사랑의 시각마라톤대회 (개최)	
		장애학생디스크골프대회 (개최)	
		특수교사배드민턴대회 (개최)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국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장애인·비장애인·어울림·동호인 (개최)	
행사	어울림(농아인)게이트볼대회		
	어울림배드민턴대회		
	어울림수영대회		
	어울림축구대회		
	어울림테니스대회		



NEWS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소식

거점스포츠클럽

01.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대회서 돌풍

거점스포츠클럽이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대회는 지난 3월 25일(금)~3월 29일(화) 충청북도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회여서 전국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플러레 남중부·남초부, 아베 여초부 선수 16명이 출전해 돌풍의 주역이 됐다. 특히 △플러레 남중부 단체 2위(최예승, 성정민, 김민결, 김건우) △플러레 개인 3위(최예승) △플러레 남초부 단체 2위(윤우빈, 김찬경, 전주현, 이한솔) △플러레 개인 1위(김찬경) △아베 여초부 단체 1위(안효주, 전주홍, 김지연) △에베 개인 1위(안효주) △에베 3위(전주홍, 김지연)의 성과를 보였다. 이 성과를 발판삼아 거점스포츠클럽 펜싱팀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02. 2022년 부산초중학생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

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들이 지난 3월 22일(화)부터 진행된 2022년 부산초중학생체육대회에서 부산대표로 선발됐다. 체조 종목에서는 202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마 1위를 했던 윤자영 학생을 비롯해 총 5명(여중부2, 여초부3)이 선발됐다. 특히 여초부 오지원 학생은 개인종합, 도마, 평균대, 마루에 1위를 하며 4관왕에 올랐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총 6명(여중부2, 남초부2, 여초부2)이 선발됐다. 거점스포츠 클럽 관계자는 "클럽 소속의 많은 전문선수들이 부산대표로 선발돼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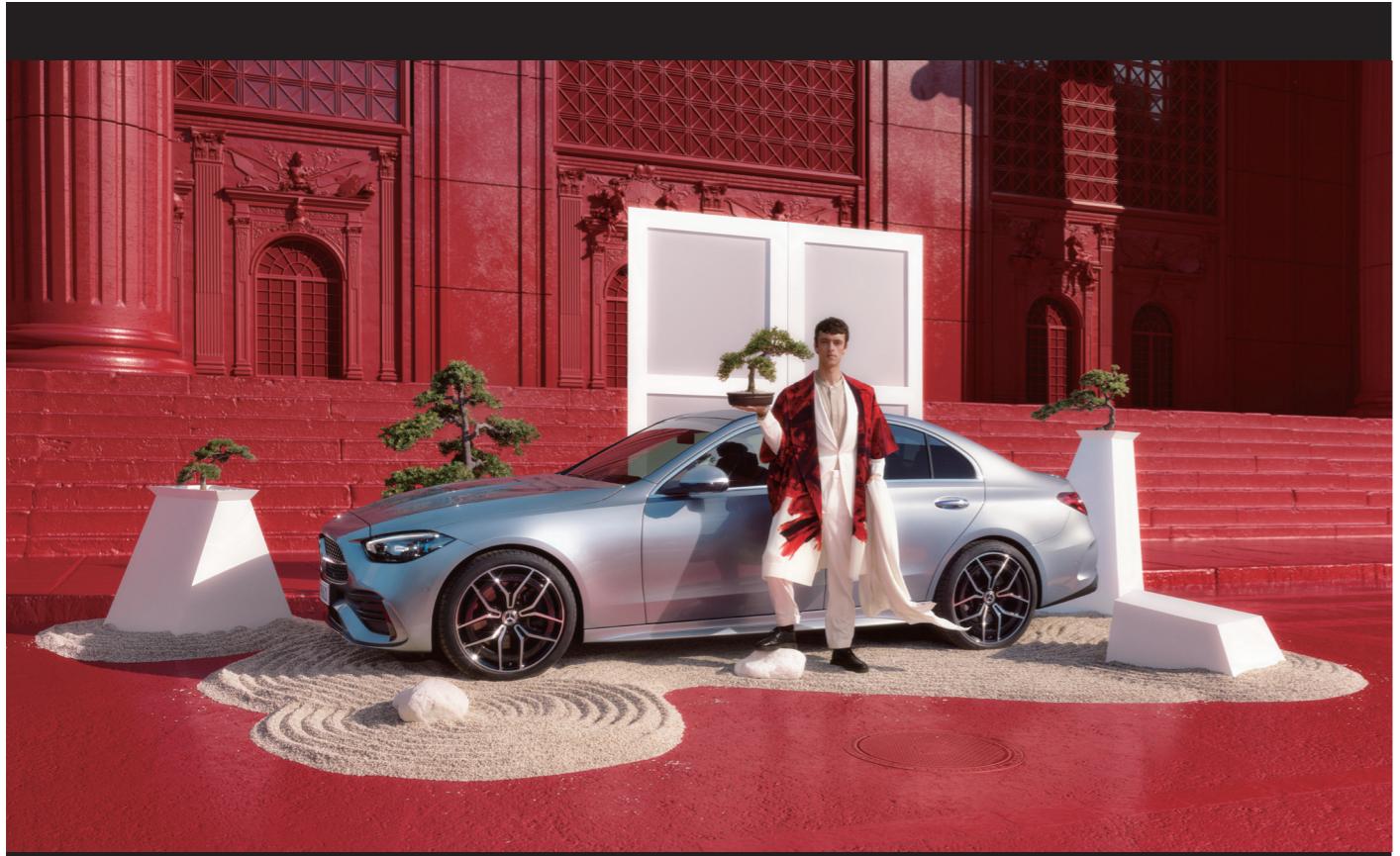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01.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대회 참가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사)대한스쿼시연맹에서 주최하는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다. 대회는 3월 24일(목) ~ 3월 27일(일) 200여명이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 일반부로 참가해 진행됐다. 그 결과 클럽 소속 이은채 회원이 초등부 3위, 김솔아·김혜민 회원이 여자 중등부 공동 3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The new C-Class Sedan

편안함과 럭셔리함이 공존하는 The new C-Class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 1688-2369(Benz)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브랜드 스튜디오	051-901-2390	부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인로 147, B1	
인증중고차 사	051-911-2369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기장로 21	
직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종로 74번길 10(삼산동)	
대표번호	1688-2369(benz)		
홈페이지	www.mbstar.co.kr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베스틸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Tel : 055-259-2000 Fax : 055-259-2020
<http://www.finebest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인터내셔널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 051-796-7000 Fax :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철강(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6-1
Tel : 051-322-1177 Fax :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모든 프리미엄 피자
방문 포장 시
40% 할인

얼리밋 치즈포켓
넘쳐 흐르는 치즈를
포켓에 꽉꽉 담았다!



진영푸드주식회사

신용대출
ONE하는대로



고객이 고민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로처럼 복잡한 대출을 한 번에
직장인도, 공무원도, 전문직도, 자영업자도
하나의 상품에서 답을 찾다

부산은행
ONE신용대출

ONE신용대출



복잡한 대출신청을 심플하게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대출 결과 바로 확인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BEST&MUST

마신러닝 기법이나의 성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한도와 금리 추천



온미채널 프로세스

영업점이든 모바일이든 채널이 바뀌어도
끊김 없이 이어가는 신청 절차

- ONE신용대출은 개별 대출상품이 아닌 상품 조건 제공을 위해 구성한 상품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하고 15.0%(>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2.0%)
 - 일부상대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242(심의일자 2021.03.17) 유효기간 2021.03.17 ~ 2021.12.31

